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84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15,1-32)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15,1-32

오늘 복음의 세 비유에서 한결같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세속의 관점에서 즉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하느님의 관점인 사랑에서 보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 정의에 의해서는 죄를 단죄해야 하지만, 사랑에 의해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이러한 용서는 용서받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참 평화와 참 기쁨을 체험하게 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또 잘못하게 마련이다.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늘 잘못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교정사목을 하면서 많은 수용자들을 만나고 체험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치려는 그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에 젖어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 하느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며, 죄에 대해 들을 때나 사랑에 대해 들을 때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쉽게 타인의 잘못을 보고 배척하며 욕하고 또 말을 하는 사람, 나는 결코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리사이의 삶이다.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허물이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느님께 다가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복음은 주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기다리신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의 모습인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자 하신다.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로 달려가자. 언제까지 우리는 머뭇거리고 지체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 아버지의 속을 상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느님께 나의 허물을 고백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것이다. 참다운 용서의 기쁨을 얻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에게 나아가자.

(수원교구 9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애가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저자

유다 전승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았지만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작 시기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예루살렘 침공 이후.

저술 동기

예루살렘의 몰락을 통하여 재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주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있게 하려고.

애가의 구성

1. 첫째 애가(1,1-22): 예루살렘의 참상
2. 둘째 애가(2,1-22): 주님의 진노
3. 셋째 애가(3,1-66): 고통과 희망
4. 넷째 애가(4,1-22): 징벌의 한가운데서
5. 다섯째 애가(5,1-22): 애원의 기도

공지사항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하신 한국 103위 순교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고 기림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거룩한 달이 되도록 우리의 정성을 함께 모읍시다.

-9월 26일 교중미사 중에 2011년 부활절 영세 예비신자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번 입교식에 많은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성경말씀

루카 17,11-19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 병이 나은 나병 환자 열 사람 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많은 사랑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받음에 기뻐만하며 제 갈 길로 가버린 아홉 사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침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도하녀...
저서 현 정 수
적곡 현 정 수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중 - 기 하 고 방 사 하 자 세 상 모 두 에 게

마 음 보 - 아 기 도 하 고 함께 나 가 자 천 국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